

물러나는 '라면의 신' 신춘호 농심 창업주... 장남 후계 전망

〈신동원 부회장〉

신라면·너구리·짜파게티 등 점유율 1위 '라면 명가' 일귀 회장직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신동원 부회장 차기회장 유력



신춘호 농심 회장. (작은 사진)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는 장남 신동원 부회장.

농심의 창업주인 신춘호 회장이 다음 달 등기이사직에서 내려오면서 56년간 지켜온 농심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업계에서는 장남이자 농심홀딩스 최대 주주인 신동원 부회장이 차기 회장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농심은 다음 달 25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신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6일까지다. 주주총회에는 신 회장의 장남인 신동원 부회장과 박준 부회장, 이영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현재 신동원 부회장과 박준 부회장은 각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1932년 울산에서 태어난 신 회장은 세계 5위 라면 회사를 일구며 국내 라면 시장을 키운 주인공이다.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동생인 신춘호 회장은 1965년 농심의 전신인 롯데공업을 창업한 뒤 1978년 사명을 농심으로 바꿨다. 1992년 10월 농심 회

장직에 오른 뒤 등기이사직을 수행해왔다. 농심은 1970년대 닭고기 대신 소고기 육수를 사용한 '소고기라면'을 선보인 이후 '너구리' '육개장 사발면(1982년)' '안성탕면(1983년)' '짜파게티(1984년)' '신라면(1986년)' 등 히트 상

품을 줄줄이 출시하며 1991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섰다.

신 회장은 2003년 농심을 인적 분할해 지주회사 '농심홀딩스'를 신설하면서 후계 준비를 해왔다. 현재 상장사 농심홀딩스·농심·울촌화학 3곳과 비상장, 해외법인 등 계열사 총 35개사를 산하에 두고 있다.

농심그룹은 현재 신 회장의 세 아들인 신동원 농심 부회장(장남), 신동윤 울촌화학 부회장(차남), 신동의 메가마트 부회장(삼남)을 중심으로 승계 판이 짜여 있다.

농심홀딩스는 신동원 부회장 지분율이 42.92%로 최대주주이고 신동윤 부회장이 13.18%를 보유하고 있다. 울촌화학은 농심홀딩스(31.94%)가 최대주주이고 차남인 신동윤 부회장이 2대 주주(13.93%), 신춘호 회장이 13.5%를 가지고 있다. 메가마트는 삼남인 신동의 부회장 지분 56.14% 외 다른 형제들의 지분은 없어 사실상 계열 분리가 완

료된 상황이다.

차기 회장으로 유력한 장남 신동원 부회장은 2000년에는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사실상 농심 경영을 맡아 왔다. 1958년생인 신 부회장은 고려대학교 공학도를 졸업하고 1994년 농심 전무, 1997년 농심기획 대표이사, 1997년 농심 국제담당 대표이사, 2000년부터는 농심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재계 안팎에서 신 부회장은 이미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농심은 지난해 매출액·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출은 2조63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늘었고 영업이익은 103.4% 증가한 1602억원이다.

농심 관계자는 "신 회장은 등기 임원직에서만 물러나는 것일 뿐 회장직은 당분간 유지한다"면서 "추후 신동원 부회장이 차기 회장직에 오를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LG vs SK 배터리 소송' 운명의 날 임박... 누가 웃을까

10일 미국 ITC 소송 최종 판결
丁 총리 개입 등에 합의 가능성
협상금 관련 입장차 커 평행선



SK이노베이션 직원이 배터리를 들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소송'이 내주 결론 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날 예정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국제무역위원회에 2차 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SK이노베이션에 다량 유출됐으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내주 최종 판결이 이뤄질 경우 약 22개월 만에 양사 간 배터리 소송이 결론 나게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할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의 전지 사업 미국 법인 소재 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 2월 예비결정을 통해 조기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패소할 경우 미국 시장 내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정치권까지 나서 양사 간

배터리 소송의 해결을 촉구하면서 합의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K-배터리의 미래가 앞으로 정말 크게 열릴 텐데 작은 파이를 놓고 싸우지 말고, 양사가 나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큰 세계 시장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파우치 배터리.

상황을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라며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양사가 싸우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 남이 누군지는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다 사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문제는 양사 간 협상금 관련 입장차가 크다는 데 있다.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2조8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배터리 관련 각종 소송을 지속해오면서 양사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진 상태다. 그만큼 합의의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미국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이 양사 간 특허무효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배경을 두고도 공방전을 벌인 바 있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 8건에 대해 조사개시 거절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 낮아 조사 개시를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SK이노베이션은 단순히 미국특허청의 정책변경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사실상 오는 10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이 이뤄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무역위원회가 해당 소송의 최종 판결을 당초 지난해 10월에서 이달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최종 판결의 연기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최종 판결의 미국 내 파급력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호미 활용 '한국판 뉴딜' TV 광고 제작

농기구 호미, 아마존서 대박 행진
글로벌 시장 개척 이야기 담아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나라 농기구 '호미'가 한국판 뉴딜 홍보를 위해 나섰다.

대표 전통 농기구인 호미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만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등 실제 이야기를 담은 TV 광고가 그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작한 이번 광고는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우리 주변의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 쉽고 호감도

있게 전달하려는 취지로 제작됐다.

특히,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상으로 활로 모색, 시장 개척을 보여준 '아마존 호미'는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와 꿈을 주는 정책'이라는 한국판 뉴딜의 지향점과 일치하고 있다.

이번 광고는 주요 TV 채널, 유튜브, KTX 등을 통해 1월 27일부터 2월 말까지 송출될 예정으로, 온라인 영상 게시 일주일 만에 57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등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

광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제2, 제3의 호미이야기가 나올 수 있길 바란다", "우리 일상 가까이 생활 속에서 편리함

을 느낄 수 있게 될 것 같다"는 등 한국판 뉴딜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영상 속 주인공인 석노기 장인은 "디지털을 활용해 호미가 원예 분야 고객 만족도 1위를 하는 등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며, "한국판 뉴딜이 성공해서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어려운 사람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성공한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한국판 뉴딜의 주인공"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를 조기에 극복하고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디지털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 설 선물 나눔 캠페인 동참

간부들 자율적으로 성금 모아
사과 구입해 코로나 의료진 전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 명절을 맞아 범정부적 나눔 운동인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8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부터 최기영 장관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자율적으로 성금을 모금해 지난해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청송군의 농산물인 사과세트 100상자를 구입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동남권원자력연구원 의료진들에게 선물로 전달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민을 돕고, 코로나19 극복 의료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캠페인에 과기정통부 간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국민들께서 설 명절 따뜻한 온기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윤정 AI 전문기자